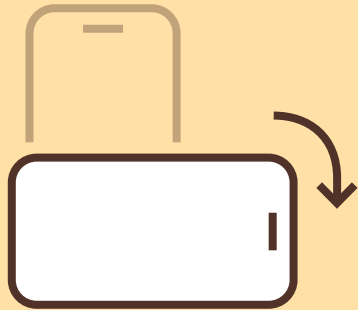




2025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결과보고



이 보고서는 가로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가로로 돌려서 더 편하게 보세요!

COVER STORY

홍수로 학교가 무너진 뒤에도 지원을 통해 교육을 이어간 인도네시아 아동



04

2025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07

지진 | 미얀마·아프가니스탄

12

태풍·홍수 | 인도네시아·스리랑카

18

분쟁 | 팔레스타인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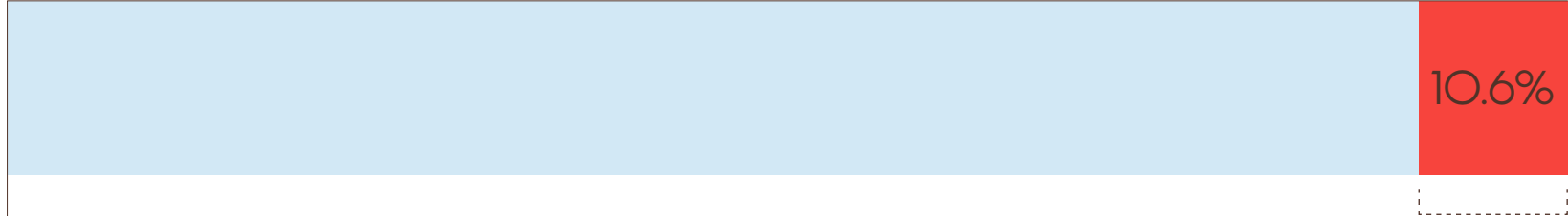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인도적지원 사업

# 2025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세이브더칠드런은 재난·재해 속에서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인도적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적지원 유연기금(The Humanitarian Fund)은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원 중 하나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30개 회원국이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지정 기금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우크라이나 분쟁 등 특정 재난 대응을 위해 사용처를 정한 지정 기금으로 운영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비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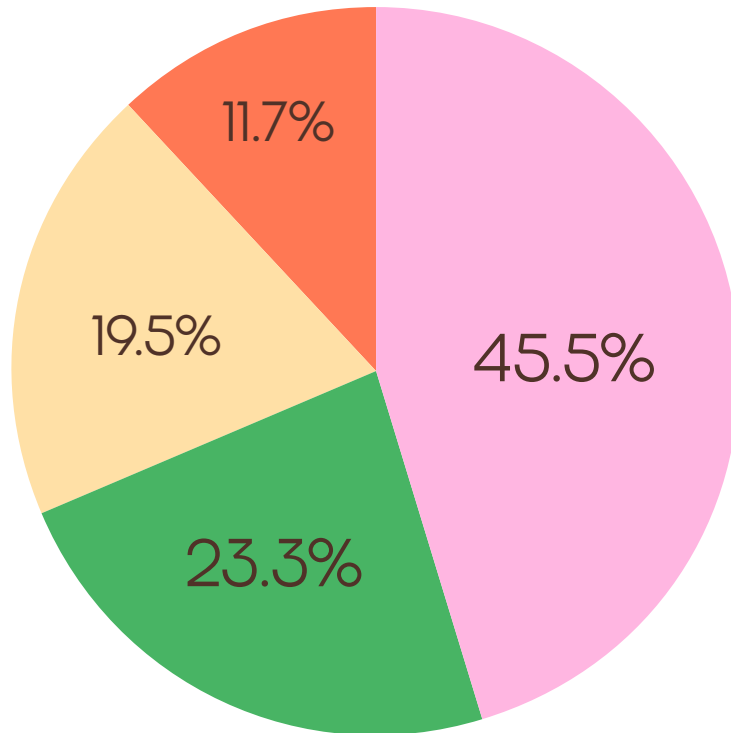
714,461,646<sup>달러</sup>

한화 약 1,025,181,016,003원

2025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총 확보액

75,526,708<sup>달러</sup>

한화 약 108,373,273,30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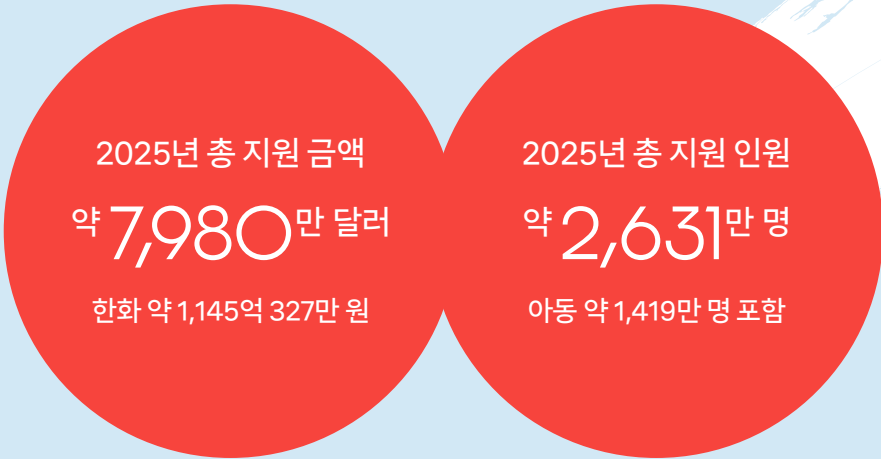


2025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총 확보액 구성

● 비지정 기금(가장 시급한 곳에 우선 지원)	34,338,256 <sup>달러</sup> 한화 약 49,271,963,534원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지원 기금	17,593,171 <sup>달러</sup> 한화 약 25,244,441,068원
● 우크라이나 분쟁 지원 기금	14,758,609 <sup>달러</sup> 한화 약 21,177,128,054원
● 기타 지정 기금	8,836,672 <sup>달러</sup> 한화 약 12,679,740,653원

※ 원화 환산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환율(1\$=1,434.9원) 적용

# 2025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지원 내역



- 대표 위기
- 지원 금액
- 지원 인원

##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 약 4,205만 달러(한화 약 603억 4,240만 원)
- 5,135,257명(아동 2,618,280명 포함)

## 동·남아프리카

- 수단 분쟁, 소말리아 분쟁, 마다가스카르 태풍
- 약 1,331만 달러(한화 약 191억 457만 원)
- 8,931,870명(아동 4,809,394명 포함)

## 아시아

- 미얀마 지진/분쟁, 아프가니스탄 지진/분쟁, 인도네시아 홍수, 방글라데시 난민
- 약 1,082만 달러(한화 약 155억 3,251만 원)
- 5,292,853명(아동 2,429,328명 포함)

## 서·중앙 아프리카

-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 약 718만 달러(한화 약 102억 9,819만 원)
- 6,561,599명(아동 4,148,523명 포함)

##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 아이티 분쟁, 볼리비아 홍수 및 산사태, 과테말라 지진
- 약 403만 달러(한화 약 57억 7,621만 원)
- 391,678명(아동 187,043명 포함)

## SC Global Team\*(운영 지원비)

- 약 240만 달러(한화 약 34억 4,939만 원)

\* SC Global Team: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글로벌 전문성 및 인도적 대응 플랫폼, 긴급 보건팀 운영 지원비

※ 원화 환산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환율  
(1\$=1,434.9원) 적용

# 2025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지원 국가 TOP 10

2025년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우크라이나 분쟁에 가장 많은 기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 자연재해, 복합위기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돕기 위한 지원도 폭넓게 이어나갔습니다.



지원 국가	대표 위기	지원 금액	지원 인원
팔레스타인	분쟁	약 1,801만 달러 (한화 약 258억 4,689만 원)	2,592,358명 (아동 874,112명 포함)
우크라이나	분쟁	약 1,572만 달러 (한화 약 225억 5,809만 원)	405,884명 (아동 305,490명 포함)
미얀마	지진	약 389만 달러 (한화 약 55억 8,151만 원)	1,951,714명 (아동 790,881명 포함)
수단	분쟁	약 315만 달러 (한화 약 45억 1,784만 원)	2,164,354명 (아동 1,106,017명 포함)
아프가니스탄	지진	약 303만 달러 (한화 약 43억 4,935만 원)	2,614,394명 (아동 1,318,201명 포함)
시리아	분쟁·난민	약 251만 달러 (한화 약 36억 534만 원)	203,874명 (아동 102,565명 포함)
소말리아	복합위기	약 246만 달러 (한화 약 35억 3,431만 원)	978,939명 (아동 583,343명 포함)
콩고민주공화국	복합위기	약 228만 달러 (한화 약 32억 7,184만 원)	2,466,687명 (아동 1,311,086명 포함)
루마니아	분쟁	약 193만 달러 (한화 약 27억 6,571만 원)	16,980명 (아동 8,034명 포함)
에티오피아	복합위기	약 192만 달러 (한화 약 27억 5,686만 원)	2,885,274명 (아동 1,551,729명 포함)

※ 원화 환산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환율(1\$=1,434.9원) 적용

# 삶의 터전을 흔든 지진, 아동의 일상을 다시 채우는 지원

2025년,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진으로 수많은 아동과 가족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과 학교, 병원과 식수 시설이 피해를 받으며 아이들은 안전하게 머물고 배우고, 돌봄을 받던 공간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거처를 떠난 이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대규모 강진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식수와 의료, 생계, 보호 등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미 취약했던 인도적 상황 위에 지진 피해가 더해지며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각 현장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긴급 대응과 회복 지원을 이어가며, 아동이 다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 ① 미얀마 샨(Shan) 주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 ② 배를 타고 지진으로 피해 입은 마을을 살피는 아동



© Save the Children



© Save the Children

# 미얀마 지진

단 몇 분 만에 끝난 지진이었지만, 아동의 삶에 남은 상처는 훨씬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3,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930만 명은 지금도 피난처가 절실합니다. 또한, 생계, 의료, 식수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이 크게 무너졌고,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여전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아이들이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집의 수리를 위한 현금을 지원 받은 가정  
© Save the Children Myanmar Country Office

상반기



111,000명 이상  
아동 34,000명 이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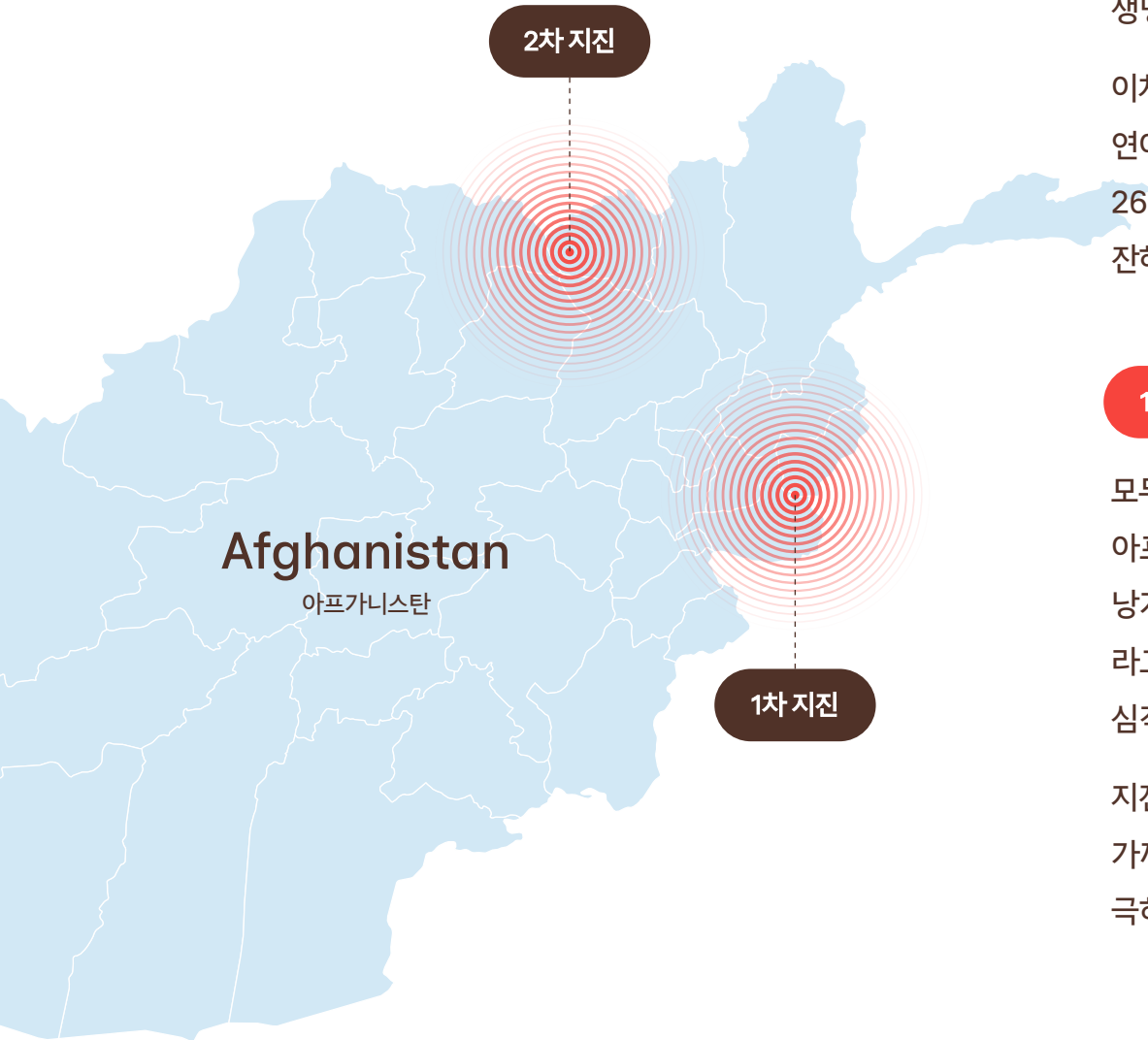
연간



275,000명 이상  
아동 80,000명 이상 포함

지원 항목	2025 상반기 지원 내역	2025 연간 지원 내역
🏠 현금 지원	27,000명 이상	60,000명 이상
💧 식수 제공	79,000명 이상	90,000명 이상
❤️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20,000명 이상	30,000명 이상
🛠️ 긴급물품 키트 배포	18,500개 이상	26,000개 이상
✦ 위생 키트 배포	8,600개 이상	20,000개 이상
🩹 의료 서비스 제공	8,500명 이상	24,000명 이상
🍎 영양실조 검사	5,000명 이상	79,000명 이상

# 아프가니스탄 지진



수십 년간 이어진 분쟁과 경제 붕괴,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작년 겨울에는 아동 3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굶주림을 겪었고, 이는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약 370만 명은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으며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던 아프가니스탄에 지난해 하반기, 1998년 이후 3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의 강진으로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4,8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26만 명이 넘는 아동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음식, 옷과 같은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잔해 속에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25,000명이 넘는 아동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1차 지진 | 2025년 8월 31일 발생

모두가 잠든 밤, 규모 6.0의 지진이 아프가니스탄 동부를 강타해 낭가르하르(Nangarhar), 쿠나르(Kunar), 라그만(Laghman), 누리스탄(Nuristan) 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이 외딴 산악 지역과 가까이 있어 신속한 접근과 구호 지원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2차 지진 | 2025년 11월 3일 발생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사만간(Samangan) 주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겨울이 시작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지진은 아프가니스탄 서부, 북부, 중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만간 주의 주요 전선이 손상되면서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 대응

지진 발생 직후, 세이브더칠드런은 피해가 심각했던 쿠나르 주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호단체 중 하나였습니다. 쿠나르 주를 비롯해 낭가르하르, 라그만 주 등의 지역에서 직접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부터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집을 잃고 큰 충격과 불안을 겪는 아동과 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겨울이 본격화된 뒤에는 매서운 추위로부터 아동과 가족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동식 보건팀을 파견해 부상자와 취약 가정을 찾아갔고, 담요와 겨울 의류, 생활용품이 담긴 월동 키트를 배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가정생활에 필요한 주방용품 세트도 지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500명의 아동을 위해 30개의 임시 학습 공간을 마련해, 지진으로 학교가 무너지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다시 배우고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식수·위생 서비스, 주거 지원, 생활용품 및 위생 키트, 다목적 현금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약 34,000명을 포함한 약 89,000명에게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① 아동친화공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 ② 이동식 보건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아동



© Atabek Khadim / Save the Children



© Save the Children

## 다시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 말랄라이 이야기



저는 쿠나르 주에서 사는 10살 말랄라이(Malalai)예요.

지진이 났던 날, 집이 갑자기 무너져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히 밖으로 뛰어나와야 했어요.

옷도, 이불도, 매일 쓰던 물건들도 모두 묻혀 버렸어요.

12명의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텐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편히 쉬기도 어렵고 아프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세이브더칠드런이 24시간 운영하는 이동식 의료센터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또 저와 친구들이 무서웠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동친화공간도 마련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다시 웃음이 나기도 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어 다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세이브더칠드런처럼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예고 없이 밀려온 홍수, 가장 먼저 아이들 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재난의 규모와 빈도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강해지는 태풍과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타격을 받는 건 언제나 아이들입니다.

2025년 한 해, 세이브더칠드런은 홍수 피해에 대한 14건의 대응과 5건의 예측적 조치를 시행하며 방글라데시, 라오스,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을 비롯해, 남수단, 잠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 총 13개국에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상황을 전합니다.



© Mas Agung Wilis Yudha Baskoro / Save the Children



© Rachel Thompson / Save the Children

- ① 인도네시아 아체 주 타미앙(Tamiang) 지역에서 태풍과 홍수로 무너진 집
- ② 스리랑카의 콜롬보(Colombo) 주의 홍수 피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 INDONESIA 인도네시아

2025년 11월부터 열대성 저기압과 사이클론 세냐르(Senyar)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ra) 섬에 강한 비가 이어지며, 아체(Aceh), 북수마트라(North Sumatra), 서수마트라(West Sumatra) 일대에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99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으며, 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와 교량, 통신선까지 끊기며 지역 사회는 며칠간 고립됐고 약 75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비좁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며 수인성 질병과 아동 보호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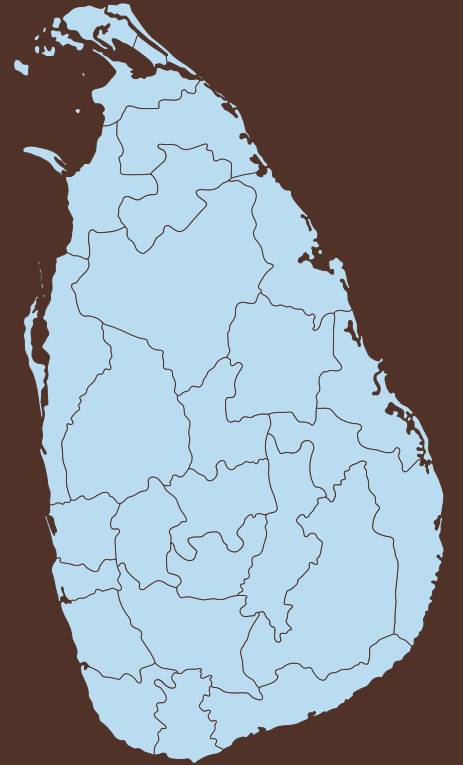
시볼가(Sibolga)와 중부 타파눌리(Tapanuli Tengah) 지역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침수된 건물과 진흙으로 뒤덮인 교실, 교복과 학용품까지 잃어 아이들은 배움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 Sri Lanka 스리랑카

2025년 11월 말, 사이클론 디트와(Ditwah)가 스리랑카를 강타하며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5개 지역에서 약 20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638명이 사망했으며 191명이 실종됐습니다. 6만 4천여 명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나 위생 시설과 아동을 위한 안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 역시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대피소로 사용됐습니다. 책가방과 교과서, 교복까지 잃은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재난은 주거, 식량, 깨끗한 물, 의료, 교육 등 삶의 필수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 인도네시아 홍수 피해 대응

세이브더칠드런은 홍수 피해 직후, 아체,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파악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담요, 식량, 깨끗한 물, 임시 대피소 키트 등 긴급구호 물품을 아동 21,000명을 포함한 51,000명에게 배포했으며, 대피소에 머무는 아동과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약 2,500명이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정에는 위생 키트를 배포하고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했으며,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영양 및 모유 수유 상담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재난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해 안전하게 놀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이 부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교육의 안전한 재개를 위해 임시 학습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학용품을 배포했으며, 교사들이 피해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이 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고, 조기 경보와 예방 조치 계획을 강화해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했습니다.

수마트라의 홍수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



© Thomas Gustafian / Save the Children

## 스리랑카 홍수 피해 대응

팀업(Team u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 Rachel Thompson /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지 인력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 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신속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9,300명 이상을 지원했으며, 800명 이상에게는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개인위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약 8,000명의 아동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청소와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팀업(Team Up)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팀업은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와 신체 활동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난 이후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정서 지원 역시 꼭 필요한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 이제는 전보다 무섭지 않아요

### 딘 이야기

저는 인도네시아 아체에 사는 14살 딘(Din)이에요.

홍수가 났던 날 밤, 엄마에게 ‘왜 매트리스가 젖었어?’ 하고 물으면서 집에 물이 들어온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빗물이 조금 찬 줄 알고 언니와 함께 집에 있던 물건들을 높은 곳으로 옮겼지만, 물은 금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고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피해야 했고, 저와 다른 가족들도 입고 있던 옷만 걸친 채 급히 집을 나와야 했어요. 며칠 뒤 다시 집에 가봤을 때는 집도, 책도, 학용품도 모두 홍수에 휩쓸려 사라진 뒤였어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홍수가 날까 봐 걱정이 돼요.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하는 아동친화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인형극도 보면 무서웠던 마음이 조금씩 괜찮아져요. 또 가방과 공책, 연필 등 학용품을 받아 동생과 그림을 그리며 놀기도 해요. 세이브더칠드런이 학교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복구를 돕고 있다고 들었어요. 얼른 다시 학교에 가서 전처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딘(Din)

## 홍수가 와도 아이들을 지킬 방법이 생겼어요

### 차마리와 가족 이야기

저는 스리랑카 마타라(Matara) 지역에 사는 40살 차마리(Chamari)예요.  
이 마을에 산 지 18년이 됐는데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쯤 겪던 홍수가  
이제는 해마다 두세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비가 오는 시기도 예전과 달라져  
원래는 건기여야 할 때 물이 갑자기 불어나기도 해요. 2024년 큰 홍수 때는  
물이 허리 높이를 넘어 머리 위까지 차올라 마을 사람들은 카누 없이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먹을 것을 사지 못해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있었고, 제 딸도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 머물러야 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저희 마을에 재난 대응 위원회를 세우고,  
주민들이 직접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어요.  
저도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응급처치와 대피소 운영,  
조기 경보, 카누 운항 방법까지 배웠어요. 마을에는 대피할 장소가  
정해졌고, 카누와 긴급 물품도 준비됐어요.  
이제는 홍수 위험이 생기면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누가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살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재난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게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다음에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 계속되는 분쟁 속 가자지구 아동을 지키는 지원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어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가자지구의 아이들에게 평범한 하루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가자지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복잡합니다. 대규모 교전은 줄었지만, 북부와 중부 등 여러 지역에서 공습과 포격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휴전 이후에도 100명이 넘는 아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에서는 총 71,667명이 사망하고 171,34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9만 명의 아동이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60%는 아직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만 명이 머물 곳조차 없어 주거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겨울에는 강풍에 텐트가 무너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❶ 위생 키트를 전달받는 가자지구 아동

❷ 가방과 학용품 세트를 받은 가자지구 아동



© Save the Children



© Save the Children



3

© Claire Thomas / Save the Children



4

© Save the Children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자지구의 아이들과 가족에게 필요한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아동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가자지구 곳곳에 2개의 보건소와 11개의 영양지원소, 134곳의 식수·위생 관련 시설, 26곳의 임시 학습 공간, 23개 지역에서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을 지켰고, 보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안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아동 95만 명 이상을 포함해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분쟁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 긴 회복의 시간 동안 아동과 가족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한 아이까지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③ 아동친화공간에서 지원받은 축구공을 들고 있는 아동
- ④ 임시 대피소에서 지원받은 식수를 마시고 있는 아동

## 아이가 다시 건강해지고 있어요

### 카밀리아가족 이야기



저는 가자기구에 사는 41살 카밀리아(Camillia)예요.

아이 셋을 키우다가 11년 만에 늦둥이 알마(Alma)를 낳았어요.

그것도 전쟁 한가운데에서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 우리 가족은 분쟁을 피해 아홉 번이나 피란해야 했고 지금도 텐트를 옮겨 다니며 지내고 있어요.

알마는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 때문에 생후 4개월부터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으러 세이브더칠드런 진료소를 찾았다가 영양실조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때부터 진료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는 모유 수유 상담부터 영양 상담까지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고, 알마는 약과 영양 보충식, 보충제를 받으며 조금씩 좋아졌어요.

한때는 치료를 마칠 수 있을 만큼 회복하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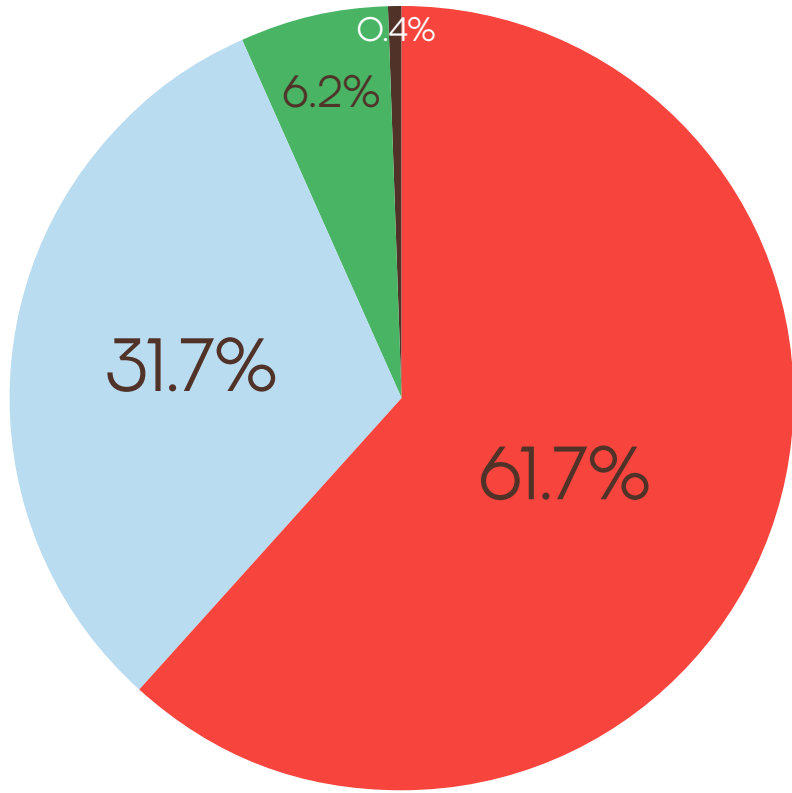
하지만 식량이 부족해지고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다시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피부 질환이 반복되고 열이 자주 나요.

그래도 세이브더칠드런 진료소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식욕이 돌아오고 기운도 되찾고 있어요.

저도 위생과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며, 알마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어요!

# 2025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인도적지원 사업

전 세계 아동과 가족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2025년,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서 인도적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도 이러한 공동의 노력에 함께 하며, 한 해 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했습니다.



총 13,766,424,876원

## ●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8,499,417,632원

세부 사업 재난·재해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자금

대상 국가 나이지리아, 미얀마, 베트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팔레스타인 등

## ● 분쟁 및 복합위기

4,358,449,050원

세부 사업 분쟁 피해 아동 및 여성 대상 폭력 예방, 조혼 및 기타 아동보호 위협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아동친화공간 구축 및 개보수, 아동 대상 심리사회적 지원, 영유아 및 임산부/수유부 대상 영양 지원 제공

대상 국가 미얀마, 부르키나파소, 방글라데시, 레바논, 우간다 등

## ● 기후 재난

846,656,733원

세부 사업 가뭄, 폭염, 홍수 등 재난 피해 아동 및 지역사회 대상 아동보호 사례 관리, 아동친화공간 구축 및 개보수, 심리사회적 지원, 생계 지원, 건강 증진 캠페인, 재난 대비 물품 지원 제공

대상 국가 에티오피아, 피지

## ● 옹호, 성과 확산 및 전문성 강화

61,901,462원

세부 사업 인도적지원 옹호와 성과 확산 및 전문성 강화, 장기적인 인도적지원 사업 기획

# 2025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 원화 환산은 송금 당시 실제 환율 적용

지원 결정일	지원 국가	발생 재난	지원 금액(달러)	지원 금액(원)
2025-02-27	유연기금 내 비지정 기금	-	1,100,000	1,609,850,000
2025-03-20	미얀마	국제 원조 삭감	100,000	143,120,000
	부르키나파소		100,000	143,120,000
	콩고민주공화국		100,000	143,120,000
2025-03-31	미얀마	지진	150,000	214,680,000
2025-05-23	아프가니스탄	분쟁/난민	100,000	136,530,000
2025-06-23	팔레스타인	분쟁	200,000	276,700,000
2025-06-24	에티오피아	가뭄	100,000	138,350,000
2025-07-30	유연기금 내 비지정 기금	-	550,000	760,925,000
2025-08-07	라오스	홍수	30,000	41,880,000
2025-08-19	파키스탄	홍수	50,000	69,800,000
2025-09-02	아프가니스탄	지진	250,000	349,000,000
2025-09-22	미얀마	분쟁	150,000	215,370,000
	파키스탄	홍수	100,000	143,5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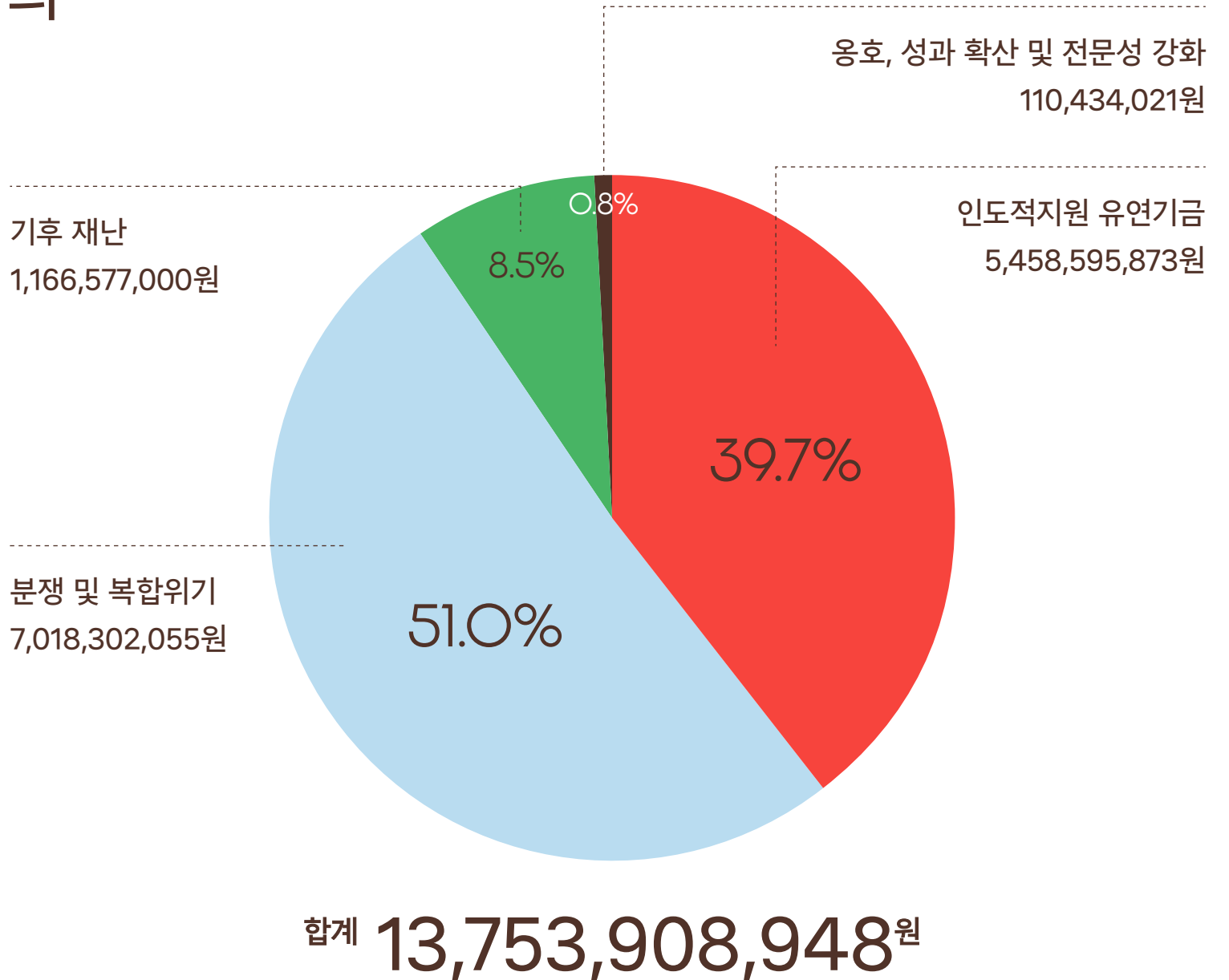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5년에 총 3,725,000 달러(한화 53억 1,766만 원)를 기여했습니다.

지원 결정일	지원 국가	발생 재난	지원 금액(달러)	지원 금액(원)
2025-09-22	베트남	태풍	50,000	71,790,000
	시리아	분쟁	70,000	100,506,000
	튀르키예(시리아)	분쟁(난민)	70,000	100,506,000
2025-10-13	케냐	분쟁	60,000	86,148,000
	필리핀	지진	40,000	58,680,000
2025-11-12	아프가니스탄	지진	60,000	87,180,000
	팔레스타인	분쟁	70,000	101,710,000
	베트남	태풍	60,000	87,180,000
	나이지리아	복합재난	65,000	94,445,000
2025-12-15	인도네시아		40,000	57,396,000
	스리랑카	태풍/홍수	30,000	43,047,000
	태국		30,000	43,047,000
<b>합계</b>			<b>3,725,000</b>	<b>5,317,660,000</b>

# 2026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인도적지원 사업 계획

전 세계 아동을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2026년에도 후원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인도적지원 유연기금을 포함해 분쟁 및 복합위기, 기후 재난, 옹호, 성과 확산 및 전문성 강화 영역에서 아동의 생명을 구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사업보고서, 사업보고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자님께 더욱 상세한 변화의 이야기를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에도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전 세계 아동의 삶을 지키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전 세계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선물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의 투명성 약속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사용에 관한 기부금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한울회계법인을 통해 연 1회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후원금 사용 내용은 연차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대표전화 02-6900-4400 | 홈페이지 [www.sc.or.kr](http://www.sc.or.kr)